

Xin Chao, Viet Nam!

국민성으로 뿔뿔 뿔친 나라, 베트남. 매년 높은 GDP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고속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35년 전만해도 이 곳은 참혹한 현상이었다. 베트남 전쟁과 잦은 국경 분쟁으로 이 땅엔 상처와 아픔의 얼룩이 스며들었고,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그 땅에 총알이 아닌 씨앗을 뿌리기 위해 나가있는 5명의 한국인 청년을 만나보았다.

Q.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라온아띠 4기 김은빈, 나하나, 이나연, 정진 그리고 최정훈입니다.

Q. 9월 한 달 동안은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A. 주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YMCA 건물에서 베트남어 공부를 했습니다. 건물 2층에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고,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멀리 떨어져 하루 종일 앉아 재봉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친하게 되어 베트남어 실전 연습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Q. YMCA에서 일하는 친구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주세요.

A. 재봉질을 하며 받은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한창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나이죠. 15명 안팎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 "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 YMCA에 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준 친구인데 하루는 많이 우울해 보여서 왜 우울하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18살. 그리고 이 곳에 온지 3년. 스무 살이 넘은 저희도 한국을 떠나와서 집에 대한 향수가 진한데, 기약 없이 재봉틀 앞에 앉아 일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저러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Q. 처음 베트남에 와서, 생각지도 못하게 물갈이를 했다던데?

A. 네, (아마) 느억미아(Nuoc Mia)라는 사탕수수물을 먹고 탈이 나서 2명의 단원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택시를 타고 근처의 큰 병원으로 갔어요. 의료비가 걱정이 되어 처음에는 베트남 현지 병원으로 갔었는데 한국에서 보던 병원에 비해 의료 시설이나 장비들이 많이 낙후되어서 놀랐었습니다. 그 이후 옆에 있는 외국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구요. 나중에 진료비를 내고 집에 와보니, 병원비가 YMCA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한 달 월급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분이 참 묘했어요. 호치민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곳곳에 보이는 예쁜 집들을 보면서 화려한 이면을 보다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한 달에 10만원 남짓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아이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Q. YMCA 노동자들과 정말 깊고 진한 인연을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그에 느끼는 바가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A. YMCA 노동자들이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조건 없이 잘해주시고 반겨주시고 선물도 주셨습니다. 사랑을 오랜만에 정말 듬뿍 받았던 것 같아요. 노동자들 중에 "화" 라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의 매니저라고 할 정도로 저희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거든요. 시장에서 예쁜 머리끈도 사다 주시고, '씨에스타' 라는 낮잠 시간에 같이 옆에 붙어 잘 정도로 친해졌어요. 쾌활한 목소리로 '안녕~' 을 외치시면서 늘 저희를 반겨주기도 하세요. 처음에는 잘 해주는 것을 떠나서 정말 무조건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뭔가를 원하는 게 있나? 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끊임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면서 앞서 생각했던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때로 돌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정말 마음껏 즐기고 친해지는 것이죠.

Q. 그들과 소통을 하려면 언어장벽이 많이 느꼈을텐데요?

A.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비해 이제는 제법 베트남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화를 유창하게 하고 싶구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화' 아주머니께서 저희의 점심과 저녁식사를 책임져주시는데 처음에는 적당한 거절의 말을 몰라서 우리를 하면서

까지 과식을 했었어요. 그 외에도 언어로 인해 사소한 오해들이 있기도 했었죠. 원래 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베트남어로 표현할 때에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매우 단순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구요. 웬지 진심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밥을 먹으며 "맛있다" 라는 단어 하나 만을 외치니까 '화' 아주머니께서 오히려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왜 '맛있다' 라고만 하냐구요.

Q.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느끼는 바가 많았을 텐데?

A.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에 비해 불편한 점은 있었어요. 자동차도 못 타고 지하철도 없고 에어컨도 덜 쓰려 노력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곳에도 사람이 사는 똑같은 세상의 모습일 뿐 이에요. 물질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나, 절대 불행하다거나 아쉬운 법이 없죠. 오히려 한국에서 많이 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활을 풍부한 마음보다도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지 말이에요.

Q.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요?

A. 베트남에서 저희들은 자전거를 타고 생활을 하는데, 자전거 타면서 서로 속도를 맞추어 가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속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닐까? 혼자 느리게, 혹은 혼자 빠르게 가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 가는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